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최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Hawaii
파견대학	University of Hawaii- manoa	파견기간	2018.8~ 2019.7
귀국여부	귀국함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하와이주에 위치해 있으며 관광지로 유명한 와이키키 바다에서는 버스타고 15분~20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 자체가 평지로 엄청 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 합치면 순천향대보다 두세배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스케이트 보드를 타거나 스쿠터를 이용합니다. 하와이의 날씨가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짹짹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캠퍼스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대체로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 의자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종은 아시안이 비율이 높는데 일본인이 특히 많고, 중국인도 많고, 그냥 인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설은 한국처럼 최신식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시설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기숙사 제외).</p>
2018-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Econ &amp; Fin Envir of Global Bus : 그냥 경제과목입니다. 제가 경제가 약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지만 피피티를 공부하면 다 따라갈 수 있고, 자신이 경제를 잘하고 개념이 잘 잡혀있다면 쉬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p> <p>Global Mgt&amp; Orgnztnl Behavior : 조직학개론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론을 많이 배웠으며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항상 이름표를 가르키며 질문을 시켰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수업을 따라갔었습니다. 퀴즈나 시험 자체는 피피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쉬웠고, 오히려 수업에서</p>

	<p>하는 조별활동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수업도 재밌어서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p> <p>Intermediate Academic Writing</p> <p>하와이에서 친 시험으로 반이 결정되는데 저는 좋은 교수님을 만나 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 수업마다 free writing을 쓰고, 학기동안 3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수업이지만 제 친구는 수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낭비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에 따라 수업방식이 다르니 첫 수업을 듣고나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Adv Academic Listen&amp; Speak</p> <p>많은 교환학생이나 유학생들이 듣는 부담되지 않는 수업입니다. 저와 같은 영어실력의 비영어권 학생들이 많이 들어서 친구도 많이 사귄 수 있었고, 주마다 blog글을 쓰고 댓글을 남기고, 또 조별로 토론주제를 준비하고, 토론하는 수업으로 즐겁게 다른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는 수업이었습니다.</p> <p>Aerobic</p> <p>일단 교수님이 너무나 밝으시고, 재밌지만 동시에 에어로빅도 엄청 땀나게 시키십니다. 이 수업만 빠지지 않고 들으신다면 미국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업 중간에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2019-1	<p>Elementary German</p> <p>다른 언어도 배우고 싶어서 선택한 과목인데 교수님도 엄청 열정적이시고, 기초부터 어렵지 않게 알려주셔서 재밌었습니다.</p> <p>Sex differences in the life cycle</p> <p>Bio/women study가 섞인 수업입니다. 여성의 몸, 남성의 몸에 대해서 배우며 성별과 같은 성에 대해서 주로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성교육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교육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느꼈으며, 성적으로 정말 오픈마인드로 배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추천하는 수업입니다.</p> <p>Multinational Bus Management</p> <p>매주 책에 있는 케이스를 읽어 오고, 그 케이스에 대한 토론과 해설을</p>

	<p>3시간 동안 합니다. 케이스를 읽어 오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고, 꼭 읽으셔야 합니다. 케이스 분량 많고 조금 어려워서 버거웠으나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은 3시간동안 케이스를 읽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유추하는 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에 아주 열정적이시고, 체계적이라서 추천드립니다.</p> <p>Human resource Management</p> <p>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수업이었는데, 피피티로 하는 수업내용과 매주 보는 퀴즈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별로 매주 다른 조들이 활동이나, 토론을 준비해오는데 제가 예상하기도 어렵고, 즉석해야 해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때는 너무 답답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되신다 하면 토론과 활동을 다 따라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추천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p> <p>Intro to the world's Religion</p> <p>세계의 종교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수업이었으나 피피티로 수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대부분 말로 종교를 설명해주며, 책에는 설명이 써 있지 않고, 키워드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수업중에 집중을 못 하면 따라가기 힘들었으며,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은 전부 다 귀로 듣고 필기를 해야 해서 구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지 않고, Ramb 교수님의 수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처음에 가면 오리엔테이션을 여는데 거기서 많은 나라에서 오는 모든 교환학생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게임도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다 친절히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8월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너무 덥고,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선풍기를 사기 전까지는 그냥 방에 최대한 늦게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습하지는 않은데 해가 진짜 찡찡해서 가만히 밖에 서있으면 발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습도가 높은 기분 나쁜 더움이 아니라 그늘에 가서 바람을 쐬면 괜찮은 그런 날씨입니다. 10월쯤 넘어서는 점점 날씨에 적응하게되고, 엄청 덥지 않아서 하와이하면 딱 생각나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겨울이 되면 일교차가 조금 높아지는데 그 정도는 그냥 긴 팔을 입으면 됩니다. 아침에는 조금 추웠지만 한국에 비하면 그 정도는 그냥 가을날씨인 것 같습니다.</p>
안전	<p>인종이 워낙 다양한 주라서 인종차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캠퍼스 안에서는 밤에 계속 campus security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밤에 배고파서 마트에 많이 가기 때문에 12시전 까지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자 다니면 무섭기 때문에 친구랑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캠퍼스 밖은 노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밤 늦게 다니면 전혀 안 됩니다. 7시 이후에 그냥 길거리를 혼자 걸은 적 있었는데 노숙자들이 쳐다 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해가 지면 무조건 친구랑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i></p> <p>Hale Kahawai(1,2학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숙소는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첫번째는 좋은 룸메이트를 만난다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 같은 층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학교안에 있어서 수업에 빨리 갈 수 있으며 또한 캠퍼스 밖에 산다면 해가지기 전에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p> <p>만약이 마노아에 가게 된다면 제가 산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장단점이 매우 확실한데, 단점은 에어컨이 없고, 바퀴벌레를 아주 자주 본다는 거입니다. 바퀴벌레는 하와이에서 산다면 어디서든지 보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밤에 절대 잔디로 걷지 마세요. 잔디에 바퀴벌레 정말 많이 숨어있습니다.) 또한 개인화장실이 없습니다. 신식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숙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기숙사가 작기 때문에 친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p>

	<p>같은 복도에 사는 친구들과는 거의 다 인사를 하면서 살았고, 또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과 많이 놀았습니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밥 먹고 놀고 자고 놀러 다녔습니다. 1년동안 같은 기숙사에 사는 애들의 얼굴은 거의 익힌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녀 공용이라서 남녀사이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p> <p>안 맞는 룸메이트를 만나면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고 기숙사에 사는 게 너무 싫어 질 수 있습니다. 이걸 복불복이지만 개강 2주 후에 기숙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Meal Plan은 기숙사에 산다면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7번 먹는 plan으로 선택했는데 막상 식당가서 먹은 적은 일주일 6번 정도였습니다. 식당에는 피자, 시리얼, 와플, 아시안 음식, 메인음식, 치킨, 샌드위치, 스프, 아이스크림, 빵, 샐러드 등등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먹으면 엄청 질리고, 2학기부터는 맛있어서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 먹으러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기숙사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점심에는 학교 meal plan을 먹기보다는 학교 campus center에 있는 식당에 가거나 그냥 학교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 먹었습니다. Meal plan을 신청하면 학교내에서 쓸 수 있는 point를 주는 데 그걸로 스타벅스나, 잠바 주스나 학교 내 마트, 또는 식당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버스,우버</p> <p>학교 학생증으로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놀러갈 때도 차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증을 잃어버리면 비싼 돈을 주고 학생증을 만들어야 하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p> <p>버스는 에어컨이 빵빵해서 오히려 춥고, 시간도 대부분 맞춰서 오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이유도 모르게 기다리던 버스가 안 온다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 같은 칼같이 오는 버스를 생각하면 힘들고, 그냥 느리면 느린대로 그런가보다하고 여유롭게 생각해야 화가 나지 않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한국-하와이 편도 40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X	
보험료	약 60만원	한화보험
숙소	약 630만원(밀플랜포함)	한학기
식비		
교통비		
책값		학교서점에서 렌트 또는 이북구매 아마존에서 렌트, 구매
멕시코 여행	약 200만원 이상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포함
기타2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무조건 리스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는건 와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말하다 보면 더 잘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스닝은 정말 안 는다고 느꼈습니다. 악센트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익숙해지면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한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에 합격하면 대략 1학기 넘는 시간이 남는데 꼭 토플공부를 안 하더라도 꼭 리스닝공부라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의사소통이 되는지에 따라 친구를 만들라고 학교에서 마련한 orientation의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특히 와이키키는 더 비쌉니다. 저는 캠퍼스내에서 밥을 만원 이하로 먹으면 싸게 먹었다고 생각했으며, 대부분 캠퍼스 밖에서 먹으면 만오천원~이만원 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한인마트가 버스타고 20분 정도이고 너무 멀지않으니 한국음식 그리우면 한인 음식점에 가서 사먹으면 됩니다. 또한 한인마트에 조금 비싸지만 음식은 다 파니 신라면, 불닭 이런것보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외국에서 안 팔 것 같은 라면이나 과자를 가져오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옷은 정말 자유롭게 입습니다. 저는 가서 슬리퍼 종류만 1년내내 신고 다녔습니다. 옷도 여름 옷 위주로 가져오는 것을 추천하지만 실내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추우므로 가을 옷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옷도 다 살 수 있지만 하와이스타일과 한국스타일이 달라서 한국스타일의 옷이 너무 좋다면 예쁜 한국 옷을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어가 써있는 티셔츠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영을 배우거나 운전면허가 있으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 해서 서핑을 못 했는데 수영을 배워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면 하와이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 버스가 있지만 가는곳이 정말 한정적입니다.

약은 자기가 맞는 약을 종류별로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에도 약이 다 있지만 저는 생리통약이나, 소화제, 감기약을 다 챙겨갔는데 다 먹었습니다. 가서 아프면 정말 정말 정말 서러우니 약을 꼭 챙겨가세요. 혹시 모르니 비상용으로 죽을 하나 챙겨가는 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바퀴벌레가 많습니다. 바퀴벌레 약을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처음에 대부분 교수님들이 책을 사라고 알려주는데 비싸게 책을 서점에서 렌트하거나 아마존에서 샀지만 책을 아예 사용 안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책으로 수업하는지 피피티로 수업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꼭 필요하면 책을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일단 저는 교환학생 생활이 아주 즐거우면서도 행복했지만 동시에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어를 원래부터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서 수업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경영학과 수업에는 무조건 조별과제가 있었고, 그 조별과제를 감당하기에는 저의 영어가 그 정도의 수준을 미치지 못 했습니다. 정말 매주 조별 활동이 있었는데 토론을 할 때는 너무 힘들었고, 자존심이 상했고, 그냥 이 수업을 드랍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발표를 시키면 제가 준비하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즉석에서 토론을 시키고 매일 예상할 수 없는 활동을 하니 내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기숙사에 돌아갈 때는 종종 울면서 돌아간 적이 있을 정도로 경영학과 수업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심해서 기숙사에 돌아가면 제 룸메이트가 항상 자기는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하는 제가 대단한 거라 위로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와 다른 좋은 친구들 덕분에 끔찍했던 경영학과 수업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수업에서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하와이 생활은 항상 불행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외국인 친구들, 한국 친구를 만났고, 영어도 늘었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한 경험은 돈으로 환산시킬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주말마다 하와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바다와 산을 다니며 활보를 했고, 파티도 하고, 하와이에 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는 외국인 앞에서 말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현지인처럼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 영어가 늘은 것은 확실합니다. 또 영어를 말할 때 실수할까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과 놀면서 느낀건데 제가 정말 영어를 개떡같이 말해도 친구들은 찰떡같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짜증내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말하세요. 말해야 영어가 늘고, 자신감도 늘어요. 저의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독립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와이에서의 1년동안 경험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건 확실히 맞지만, 이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환학생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기숙사에 보는 흔한 하와이 무지개



내 방 창문 풍경



정말 힘들었던 하이킹 후에 본 무지개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



할로윈 때 친구들과



주말에 친구들과 바다에서 놀 때